



이데올로기 브레인

우리 안의 극단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레오르 즈미그로드 지음, 김아림 옮김

2025년 4월 17일 출간 | 원제: THE IDEOLOGICAL BRAIN

판형 147×215 | 380쪽 | 22,000원 | 분야: 과학>뇌과학 | ISBN 979-11-6774-201-8 03470

책소개

“왜 어떤 사람은 보수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인가?” 이 질문은 그간 과학의 렌즈로 인간의 정치적 태도와 의사결정을 밝혀내기 위한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하지만 ‘정치-신경과학’의 선구자 레오르 즈미그로드 박사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현상 이면의 본질을 가리키는 질문,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왜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빠져드는가를 알아내야 할 차례라고 말이다.

저자는 실험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적 신념이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단순한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침투하여 신경 구조와 세포 차원까지 연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생물학과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을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어떤 뇌가 이념적 사고에 특별히 취약하고 또 어떤 뇌가 유연하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조명한다.

팬데믹의 대유행,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장악,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물리적 안전에 위협을 느낄수록 사람들은 극단주의에 더 쉽게 물들게 된다. 이 책은 신경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대하여 바라볼 것을 권하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인간 본성에 맞서 이분법적 사고와 권위에 저항하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차례

프롤로그: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비롯된다

PART 1 **우상: 우리 뇌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에 갈증을 느낀다**

1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 모든 것에 대한 단서

2 어떤 실험

게임의 규칙을 찾아내시오 | 이데올로기적 경직성

3 우리가 믿는 은유들

이데올로그를 향한 고정관념 | 뇌는 어떻게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가

PART 2 **마음과 신화: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각하고, 작동하는가**

4 이데올로기의 탄생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이데올로기, 관념의 과학 | 진정한 계몽을 꿈꾸다

5 착각과 환상의 시대

‘정신 나간 과학’이라는 조롱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데올로기 | 잔뜩 얽혀버린 실타래 | 이데올로기와 의식의 연관성

6 우리의 뇌

인간의 뇌는 예측을 좋아한다 | 혼돈에서 일관성 구축하기 | 관심받고 싶어 하는 뇌

7 이데올로기적 사고

우리는 그 안에 몸을 담근다 | 독단주의와 지적 겸손 | 실체보다 구조에 초점 맞추기

PART 3 기원: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8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잠재적 파시스트를 찾아서 | 복종하는 뇌, 저항하는 뇌

9 어린 권위주의자들

자기검열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 | 경직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10 세뇌당한 아기

습관이 뇌에 깃들이 시작하면 | 편견이 심한 아이들

11 마음이 경직된 사람들

사고의 유연성이 중요한 까닭 | 브렉시트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 우파는 당연히 경직되었다? | 극과 극은 통한다

12 경직성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가

심리적 경직성의 생물학적 토대 | COMT 유전자와 도파민 농도 | 극단주의의 후성유전학

PART 4 결과: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우리 몸과 뇌를 형성하는가

13 다윈을 잠 못 들게 한 생각

과학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한 구절 | 종교가 뇌에 미치는 영향

14 정치적 착시

객관적 세계란 존재할 수 있을까? | 시각적 착시와 정치적 착시의 연관성 |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수: 감각의 회복

15 당신의 떨리는 손끝이 말해주는 것

정치 성향과 생리적 반응의 차이 | 보수주의와 부정성 편향 가설 | 민감성,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16 뇌 스캐너 속에 들어간 이데올로기

정치-신경과학의 질문들 | 정치 이데올로기와 뇌의 해부학적 구조 | 우리 뇌에서 가장 유명한 영역

PART 5 자유: 이데올로기라는 족쇄에서 해방되기

17 극단주의로 향하는 나선

점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다 | 나선이라는 은유 | 스트레스와 이데올로기의 신경생리학

18 우리를 보호하는 동지를 찾아서

따돌림 당한 뇌가 벌이는 짓 |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리의 반응 | 동지를 탈출하려는 아이들

19 다른 이야기들

알 수 없는 것들을 단단하게 껴안기 | 마지막 실험

에필로그: 대본에서 벗어나기

저역자 소개

레오르 즈미그로드(Leor Zmigrod)

신경과학자. 정치-신경과학(political neuroscience) 분야의 선구자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본성과 극단주의의 심리를 탐구한다.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24세의 나이로 케임브리지대학교 처칠칼리지에서 선임 연구원

을 지냈고 이어 스탠퍼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베를린 및 파리 고등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을 역임했다.

“왜 어떤 사람은 보수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인가?” 이 질문은 그간 과학의 렌즈로 인간의 정치적 태도와 의사결정을 밝혀내기 위한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하지만 레오르 즈미그로드 박사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현상 이면의 본질을 가리키는 질문,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왜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빠져드는가를 알아내야 할 차례라고 말이다. 저자는 실험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적 신념이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단순한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침투하여 신경구조와 세포 차원까지 연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생물학과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을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어떤 뇌가 이념적 사고에 특별히 취약하고 또 어떤 뇌가 유연하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조명한다.

레오르 즈미그로드는 <포브스> 30세 이하 과학분야 3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유럽 인지 및 정서신경과학 학회에서 수여하는 ESCAN 2020 젊은 연구자상, 인지과학 학회에서 수여하는 2020 글루시코 논문상, 2022 인지과학 여성 신진 리더상, 2022 미국정치학회 정치심리학 신진학자상 등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았다. 30편 이상의 논문을 유수의 학술지에 발표했고, 그의 연구는 <뉴욕타임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 <뉴스이언티스트> 등을 통해 널리 소개되었다. 현재는 관련 연구를 지속하며 UN, 영국과 미국 정부 및 기타 국제기구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첫 책인 《이데올로기 브레인》은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웁킨이 김아림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했고 같은 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출판사 편집자로 책을 만들다가 지금은 번역가로 일한다. 웁킨 책으로 《니체가 일각 돌고래라면》, 《감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 《젊은 여성 과학자의 초상》, 《도덕의 탄생》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2016년 미국 대선 직전에 이르는 격동의 몇 개월 동안 실험을 시작한 덕분에, 나는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활용해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기원과 결과를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됐다. 나는 우파 플랫폼에 글을 쓰는 급진주의 활동가들부터 통일 이후 베를린에 사는 독일 청소년, 영국 외딴 마을의 노령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전통주의자에서 과격한 진보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향과 계층을 아울렀다. _9쪽, 프롤로그 중에서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에 사로잡히거나 홀릴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강력한 측정 도구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이 불러일으킨 결과를 인간의 지각과 인지, 생리, 신경학적 과정에 이르기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 몸은 우리를 둘러싼 이데올로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생물학적 몸에 반영된다. _20쪽, 1장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닌 정치관 및 편견을 별나고 심오하며 놀라운 방식으로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한 방식들은 우리가 본성과 양육, 위험과 회복력, 자유와 숙명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만약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인지 및 신경 반응 패턴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게 정치에 개입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변화하며 개별적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_36쪽, 2장 〈어떤 실험〉 중에서

이데올로기가 정치학보다는 과학적인 문제였던 적이 있기는 했을까?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전기를 살펴다 보면 우리는 언어, 역사, 과학이 어떻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교차하고 이리저리 넘나드는지에 대한 흔적을 파헤칠 수 있다. 그러면 과학으로 시작했던 문제도 나중에는 정치나 역사의 유물이 될 수 있고, 몇 세기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시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_53쪽, 3장 〈우리가 믿는 은유들〉 중에서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가 하는 두 가지 일인 예측과 의사소통은 뇌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뇌는 확실성을 추구하기에 세상 만물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 멋지다고 여긴다. 또 뇌는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세계에 관한 이론 중에서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론을 환상적이라고 느낀다. 이데올로기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인간의 인지능력과 이데올로기는 서로 유사한 속성들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데올로기에는 경직된 교리와 경직된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_110쪽, 7장 〈이데올로기적 사고〉 중에서

만약 우리가 선천적으로 취약하게 태어난다면, 우리는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생물학적 반응이 우리가 기꺼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죽고 죽이는 원인이 될 강력한 ‘이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_134쪽, 8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중에서

극우와 극좌는 인지적으로 서로 비슷했다. 두 극단 모두 독립적이고 정치와 관계 없는 상황에서 서로 머릿속의 도식 체계를 새롭게 적응시키고, 새로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극단주의가 가진 이러한 경직성은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결국 가장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오래된 ‘말발굽 이론(horseshoe theories)’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편협성과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 극좌와 극우가 비슷하다는 이론이다. _187쪽, 11장 〈마음이 경직된 사람들〉 중에서

사고의 경직성은 아무런 배경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영혼의 샘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경직성의 개인 차이는 상호작용하는 생물학적 표지를 통해 나타난다. 독단주의를 야기하는 단일한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심리적인 특성은 여러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다. 카리스마나 유머 감각, 가학적 성향, 얼마나 쉽게 울거나 웃는지 결정하는 단일 유전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호전성을 하나의 유전자로 설명할 수는 없다. _206쪽, 12장 〈경직성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가〉 중에서

극명한 경제적 불평등을 거부한 사람들은 고생하는 노숙자를 다룬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중립적인 동영상을 시청할 때보다 부정적인 생리적 각성 반응이 현저히 높았다. 그들의 신체는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체제를 정당화하는 참가자들은 노숙자에 대한 영상을 보아도 심리생리학적 지표가 치솟지 않았다. 사실 노숙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마주한 이들의 생리적 반응은 커피를 만들거나 낚시하는 동영상에 대한 생리적 반응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이들의 신체는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는 데 따르는 고뇌나 슬픔, 분노, 아픔을 거의 표출하지 않았다.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감각했다. 가장 사적인 생리적 반응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보를 넘겨준다. _265쪽, 15장 <당신의 떨리는 손끝이 말해주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선동적인 정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좌파 참가자의 뇌는 다른 좌파 참가자의 뇌와 '동시화(synchronized)'되는 반면, 우파 참가자의 뇌는 다른 우파 참가자의 뇌와 '동시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신경의 양극화(neural polarization)'라며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_268쪽, 16장 <뇌 스캐너 속에 들어간 이데올로기> 중에서

이데올로기에 빠져든 사람은 변화를 겪는다. 개인이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은 신념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인지, 본능적인 반응, 생리, 뇌 전체가 바뀐다. 개인의 성향과 이데올로기 공동체는 서로를 강화해 특정한 형질을 두드러지게 표출하거나 우선시한다. 예컨대 무질서나 격변에 대한 두려움을 먹이로 삼는 이데올로기와 융통성 없고 불안정한 사람이 결합하면, 온건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 비해 고집불통인 성격이 심해질 것이다. _293쪽, 17장 <극단주의로 향하는 나선> 중에서

청소년의 뇌가 이데올로기적 교리에 가장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뇌가 세상을 이해하고 다시 자신이 이해받기 위해 지나칠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뇌는 자신이 예측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모델을 찾고자 갈망한다. _322쪽, 18장 <우리를 보호하는 등지를 찾아서>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데올로기적 사고'라는 인간 본성의 새로운 과학
세계가 주목한 '정치-신경과학'의 선구자가 밝히는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좌우하는 숨겨진 뇌의 메커니즘**

★★★세계적 석학 스티븐 핑커, 안토니오 다마지오 추천

★★★<뉴사이언티스트> 2025년 가장 주목할 책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과학분야 30인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가치 판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신념이 전부다. 신념은 우리가 틀린 것에서 옳은 것을, 악에서 선을 구분할 수 있게 만

드는 기준이 되어준다. 그것이 종교적 사안이든 정치적 사안이든 아주 작고 사소한 의사결정 이든 말이다. 그런데 이 신념이 독단주의, 민족주의, 극단주의로 치달을 때 문제가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신념을 너무 열성적으로 믿은 나머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도 불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무엇이 인간의 사고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주변 환경의 영향일까, 아니면 개인의 타고난 특성일까?

인간의 뇌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정치-신경과학의 선구자인 레오르 즈미그로드 박사는 자신의 획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좌우하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내고자 한다. 저자는 실험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치적 신념이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단순한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침투하여 신경 구조와 세포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생물학과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을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어떤 뇌가 이념적 사고에 특별히 취약하고 또 어떤 뇌가 유연하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조명한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이념에 집착한다

저자는 2015년, 이슬람 근본주의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어린 영국 소녀들이 IS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머릿속에 커다란 질문을 한 가지 떠올리게 된다. “왜 다른 소녀들이 아닌 바로 그 소녀들이 그랬을까?” 언론에서는 교육의 부재, 사회적 불안정 등을 지적했지만 충분한 답이 되어주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분야인 신경과학의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기로 한다. 극단주의에 빠진 소녀들의 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즈미그로드 박사는 정치라는 영역을 신경과학과 연결하여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기원과 결과를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정치-신경과학(political neuroscience)’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일종의 내러티브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범을 담고 있으며,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난한다. 이때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소유’함으로써 세상을 하나의 일관된 세계로 이해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소속되길 갈망하면서 자신이 가진 신념을 강화해간다. 이렇게 우리 뇌는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수록 ‘사고의 경직성’에 갇히게 된다.

저자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흔히 새로운 정보의 수용과 사고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그 모양이나 색깔과 같은 다양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도록 요청한다. 참가자들은 금방 규칙을 찾아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규칙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파악한다. 연구진이 참가자 모르게 규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 규칙을 고수한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저항하여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들은, 규칙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행동을 바꾼다. 이 실험이 놀라운 점은 참가자들의 반응이 단순히 인지적 경직성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이념에 집착하는 경직성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단순한 규칙의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일

수록 정치적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확률이 높았으며, 역으로 정치적 종교적 극단주의에 물든 사람일수록 인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극단주의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 뇌와 정치적 신념의 관계를 밝혀낼 도발적 탐구

이 책의 1부 <우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온 은유를 설명하고, 정치와 신경과학을 통합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사고하는 뇌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2부 <마음과 신화>에서는 이데올로기의 탄생과 역사를 살펴보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을 반박한다. 또한 이데올로기 연구에 관한 본질은 흔히 말하는 ‘진보 vs. 보수’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믿느냐’보다도 ‘이데올로기가 어째서 인간에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3부 <기원>에서는 모든 개인이 이데올로기에 똑같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탐구한다. 이는 마치 닭과 달걀의 문제와도 같은데, 개인의 성격과 인지적 특성이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니면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몰입하는 것이 우리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저자는 개인의 습관부터 인지적 경직성, 도파민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을 이념적 도그마에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인지적, 생물학적 특성들을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엘제 프렌켈-브룬즈비크가 1940년대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인터뷰한 연구를 소개하며 아직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인지적 경직성과 이념적 경직성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 편견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기억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지 살펴본다.

한편 저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가장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 도파민 농도가 조절되는 방식이 다른 이들과 유전적으로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두엽 피질에서 도파민 수치가 낮고, 중뇌의 주요 구조물인 선조체에서 도파민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데올로기에 취약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의 보상 회로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이념을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의견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수준에서부터 벌어지는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취약성을 가진 이들의 뇌와 신체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질문하며 ‘기원’에서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주의를 돌린다.

어떻게 이데올로기라는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최신 신경과학이 전하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한 까닭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과연 하나의 공통된 세계라고 볼 수 있을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는 마치 사람들이 제각각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이는 말뿐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몰입하는 것은 개인의 감각 지각, 감정, 생리적 반응, 뇌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념에 깊이 몰입한 사람의 경우, 중도 성향의 사람보다 정보 처리 방식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저자는 “좌파 성향의 중도파”가 인지적으로 가장 유연하다는 실험결과를 전한다.

4부 <결과>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

야기를 들려준다.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우리의 시각적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시각적 착시와 정치적 착시의 연관성),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보수주의와 부정성 편향 가설)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두뇌 구조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준다. 마지막으로 5부 <자유>에서는 우리의 유전적, 환경적 영향이 경직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유전적 결정론이나 자유의지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이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팬데믹의 대유행,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장악, 전쟁과 자연재해 등 사람들은 물리적 안전에 위협을 느낄수록 극단주의에 더 쉽게 물들게 된다. 공포와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 뇌를 자신이 가진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신경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대하여 바라볼수록,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인간 본성에 맞서 비합리적 규칙과 권위에 저항하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말한다.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이 책은 신경과학의 최전선에서 밝혀진 놀라운 통찰들을 전하며 우리를 악성 도그마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추천의 말

통찰력 있는 연구 결과로 가득 찬 이 책은 이념적 극단주의와 양극화가 우리의 걱정거리에서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퍼즐임을 보여준다.

스티븐 핑커 |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저자

현실의 정치가 인간의 생명현상과는 별개의 영역에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레오르 즈미그로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한 허구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하겠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신경과학 석좌교수, 《느낌의 진화》 저자

☞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열린 사고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눈부신 깨달음을 전하는 놀랍도록 독창적인 책이다.

캐스 R. 스타인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넋지》 저자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굴복하며 심지어 테러에 동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낸다.

나이절 워버턴 | 철학자, 《철학의 역사》 저자

신경과학이란 도구를 이용해 인간의 유연한 사고와 독단주의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들려준다. 이보다 더 시의적절할 수 없는 책이다.

애덤 필립스 | 정신분석가, 《멀쩡함과 광기에 대한 보고되지 않은 이야기》 저자

레오 즈미그로드의 대망의 데뷔작. 새로운 연구를 통해 양극화된 사고는 단순히 머릿속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 구조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텔레그래프>